



강철구(웨신대)

## 1. 들어가며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거부할 수 있을까?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서 자신의 생명에 연연하지 않고, 가장 강하게 하나님께 저항했던 인물이 선지자 요나[נְיוֹן (비둘기)]<sup>2</sup>일 것이다. 구약에서 요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곳은 요나서 이외에 열왕기하 14장 25절이 유일하다. 요나는 여로보암 2세(주전 787-747)가 다스리던 북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한 선지자로

---

1 본 연구는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대학교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으며, 2019년 1월 7일에 웨신대학원 대학교에서 개최되었던 '제10차 성경 주해 키(Key) 세미나'에서 발제한 내용을 수정, 보완했음을 밝힌다.

2 H. W. Wolff, *Dodekapropheten 3. Obadja, Jona* (B.K XIV3),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77), 76.

가드헤벨(Gat-Hepher)<sup>3</sup>의 아밋대의 아들이다. 그러나 역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요나서를 이해하는 데 이러한 정보는 오히려 많은 논쟁을 초래한다. 요나서에서 언급된 니느웨와 관련된 내용이 역사적인 사실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왕이 거주하는 성읍으로서의 니느웨<sup>4</sup>와 니느웨의 회개 운동 등).<sup>5</sup>

이러한 역사적인 관점 외에도 요나서는 구약의 선지서 중에서 가장 독특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요나서 연구사에서 요나서의 장르와 의도는 지속적으로 문제시되어왔다.<sup>6</sup> 많은 학자들이 요나서를 예언서에 포함시키지 않고, 선지자 개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개인 전기, 선지자 이야기, 알레고리, 동화, 전설, 소설, 비유, 설교, 비극 혹은 미드라쉬 등으로 보고 있다.<sup>7</sup> 그러나 요나서에 선지서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여기는 ‘하나님의 심판선언’이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또한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서 임무를 받을 때 3장 2절의 “일어라”, “가라”, “선포하라”와 “여호와의 말씀”이 언급되고 있는

- 
- 3 가드헤벨(Gat-Hepher)은 나사렛(Nazareth)에서 북쪽으로 5Km에 위치하고 있다. Hans-Jürgen Zobel, "Jona/Jonabuch", TRE XVII (1974), 229.
  - 4 니느웨는 가장 오래된 메소포타미아의 도시들 중의 하나이다. 함무라비 왕 때에 그의 왕국의 큰 도시로 성장하지만, 본격적으로 니느웨가 앗시리아의 중심 도시가 된 것은 산헤립이 통치하던 시기부터다(주전 704-681). 잇수어 바니팔에 가서는 도시가 훨씬 더 확장되었다(주전 664). Ursula Struppe, *Die Bücher Obadja, Jona* (NAKAT 24/1), (Stuttgart: Katholisches Bibelwerk, 1996), 85; 그러기에 니느웨는 역사적인 실체로서 접근하기보다는 역사성을 초월해서 적대적인 힘에 대한 하나의 상징으로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Walter Dietrich, "Ninive in der Bibel", Walter Dietrich (ed.), *Theopolitik, Studien zur Theologie und Ethik des Alten Testaments*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2002), 239-254.
  - 5 아람어와 후기 히브리어 형태는 요나가 나중에 형성되었음을 말해준다. 또한 "하늘의 하나님"(1:9), "왕과 그의 신하들"(3:7)과 같은 형식의 표현은 페르시아 시대(포로 후기 공동체)임을 증명한다. Hans-Jürgen Zobel, *읽글*, 230; 요나서의 역사성을 옹호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더글라스 스투어트, 「호세아-요나」, (김병하 옮김), (서울: 솔로몬, 2011), 773-777. 원제는 Douglas Stuart, *Hosea-Jonah* (WBC 31), (Nashville: Thomas Nelson, 1987).
  - 6 Hans-Jürgen Zobel, *읽글*, 231.
  - 7 요나서의 다양한 장르에 대한 소개로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P. Trible, *Rhetorical Criticism Context, Method and the Book of Jonah*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4), 108; Ursula Struppe, *읽글*, 59; 에리히 첵여, 「구약성경개론」 (이종한 옮김), (왜관: 분도출판사, 2012), 943. 원제는 E. Zenger, *Einleitung in das Alte Testament* (Stuttgart: Kohlhammer, 2004); 김상래, "요나의 기도(은 1:17-2:10)에 묘사된 요나의 성격이해", 「구약논단」, 53집(2014년 9월), 224; Aaron Scharf, "The Jonah-Narrative within the Book of the Twelve", Rainer Albertz/James Nogalski/ Jakob Wöhrle (eds.), *Perspectives on the Formation of the Book of the Twelve: Methodological Foundations-Redactional Processes-Historical Insights* (BZAW 433: Berlin/Boston: Walter de Gruyter, 2012), 110-111.

것은 전통적인 선지서에서 볼 수 있는 형식이기도 하다. 그러기에 많은 논쟁에도 불구하고 넓은 의미에서 요나는 선지자로 간주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요나서도 선지서에 포함될 수 있는 성경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sup>8</sup> 하지만 전통적인 의미에서 선지서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존의 선지자 전통을 새로운 관점에서 패러디한 작품(선지서의 패러디)’으로 보는 것이 더 좋을 듯하다. 그러기에 요나서는 최소한 선지서의 전통 속에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sup>9</sup> 게다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전통적으로 요나서는 12 소예언서에 속한다는 사실이다.<sup>10</sup>

그동안 많은 학자들이 요나서를 선지서로 간주하지 않았기에 요나의 ‘심판 선언 양식’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었다.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그동안 소홀히 다루었던 요나의 심판 선언을 전통적인 선지자의 심판 선언 양식과 비교함으로써 요나가 전한 니느웨를 향한 심판 선언의 의도와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요나의 선포를 전형적인 구약의 선지자의 선포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서 요나의 의도뿐만 아니라 요나서의 기록 목적까지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거부하는 선지자를 설득하면서까지 그 사역을 맡기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요나서의 역사성이나 형성사보다는 현재의 정경적 텍스트인 요나서에 언급된 심판 선언 양식과 그와 연관된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요나서의 역사성이나 형성사에 대한 문제는 가급적 필요한 경우에만 언급하는 것으로 제한하고자 한다.

---

8 Aaron Scharf, 윗글, 117.

9 Ursula Struppe, 윗글, 78.

10 12 소예언서 내의 요나서의 위치와 구성에 대해서는 구자용의 논문을 참조하십시오. 구자용, “12 소예언서의 이방 민족들: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말을 중심으로 본 12 소예언서의 구성에 관한 연구” 『구약논단』 71집 (2019년 3월).

## 2. 요나서의 심판 선언(하나님의 심판 선포 명령과 요나의 심판 선언)

요나서는 이방 민족 앗시리아의 중심 도시인 니스웨에 대한 심판과 회개에 대한 이야기이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이방 민족의 심판과 재앙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그러나 선지자가 그 심판의 대상이 된 이방 지역에 직접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선지자로는 요나가 유일하다.

요나는 니스웨에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전해야 할 선지자로 활동한다. 그럼에도 요나는 최종적으로는 재앙 선지자가 아니라 구원 선지자 계열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sup>11</sup> 왜냐하면 요나 선지자의 선포가 니스웨의 회복과 구원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본 단락에서는 요나가 선포한 심판 선언이 어떤 것이길래 재앙이 아니라 회개와 용서를 가지고 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구약의 심판 선언 가운데 가장 짧은 메시지를 선포한 선지자가 요나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니스웨에 전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선포하라고 하신 말씀과 요나가 직접 니스웨에 선포한 선언은 다음과 같다.<sup>12</sup>

###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스웨에 대해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

#### - 첫 번째 선포 명령

요나서 1:2

קִים לך אֱלֹהֵינוּהָהָעִיר הַגְּדוֹלָה וּבָרָא עֲלֶיהָ  
כִּי־עָלְתָה רָעָתָם לִפְנֵי: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스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 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11 열왕기하 24장 25절에 언급된 이스라엘의 회복에대한 선포와 관련해서 요나는 기본적으로 구원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다음을 참고하시오. Ursula Struppe, 윗글, 60; H. W. Wolff, 윗글, 75-76.

12 본 논문에 인용되는 성경 번역은 「개역개정판」을 사용했다.

## - 두 번째 선포 명령

요나서 3:2

קום לך אל־נינוּה העיר הגדולה  
ויקרא אליה את־הקריאה אשר אנכי דבר אליך: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 <요나가 니느웨에서 전한 말>

요나서 3:4

ויחל יונה לבוא בעיר מתלך יום אחד  
ויקרא ויאמר עוד ארבעים יום ונינוּה נהפכת: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위쳐 이르되 “사십 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다니

요나는 첫 번째 하나님의 선포 명령에 저항하고, 다시스(תרשיש)로 도피하고자 했다. 그러나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을 경험한 후에는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에 대해서는 크게 저항하지 않고, 따르는 것처럼 보인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선언한다. 요나가 니느웨에서 선포한 말은 단 한 문장이다. 그것은 “사십 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3:4 ויחל יונה לבוא בעיר מתלך יום אחד ויקרא ויאמר עוד ארבעים יום ונינוּה נהפכת]는 말이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처음부터 말씀하신 “네게 명한 바”(3:2)가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이렇듯 겉으로 보기에는 요나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비록 니느웨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조차도 내키지 않았지만, 최소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선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요나는 선지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구약의 다른 선지서들에 등장하는 예언자들의 심판선언과 비교, 분석

함으로써 단서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

### 3. 요나서와 다른 선지서들의 심판 선언 비교

심판 선언과 관련해서 요나서와 구약의 다른 선지서들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비교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요나서가 구약의 선지서들 중에서 요나서와 같은 이방 민족을 향한 심판 선언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냐 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요나와 그 외의 선지자들의 심판 양식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요나의 심판 선언의 독특성과 이해를 위한 근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1) 요나의 니느웨에 대한 심판 선언과 다른 선지자들의 열방 심판 선언과의 차이

구약성경에는 요나서 외에도 열방에 대한 심판 선언이 언급된 선지서들은 많이 존재한다. 요엘서 3장 1-12절에서도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이 언급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는 이유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이사야에 등장하는 열방 심판 선언(13-23장)도 마찬가지다. 물론 모든 심판 선언이 이방 민족의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에 언급된 이방 민족의 심판은 이스라엘이나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한 것이지, 선지자가 그 이방 민족들에게 직접 가서 선포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러기에 이러한 열방에 대한 심판 선언은 이스라엘이나 유다 백성들에게 위로와 경고를 목적으로 한 것이지, 이방 민족의 회개를 염두에 둔 것은 전혀 아니다.<sup>13</sup> 왜냐하면 이러한 선포를 이방 민족들은 직접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요나서는 구약의 다른 선지서들과는 전적으로 다르다. 심판의 대상인 이방 민족의 도시에 직접 가서 선지자가 심판을 선

13 Jutta Krispenz, "Prophetische Redeformen", 6, <http://www.bibelwissenschaft.de/stichwort/31384>.

포함 경우는 요나서가 유일하다.

오바다, 요나나 나훔처럼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이 한 나라나 한 민족을 대상으로 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방 민족의 심판은 이스라엘 이외의 전체 열방이 집단적으로 언급된다. 이러한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예언은 주로 이방 나라들을 몰락시킨 주체가 하나님임을 드러내심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로서 통치하고 계시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공의와 정의임을 알리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sup>14</sup> 이것은 요나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요나서에서의 이방 민족 니느웨에 대한 심판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방 민족까지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심판의 기준은 공의와 정의라는 보편적인 기준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선포의 대상, 의도와 방식에서 요나서가 다른 선지서들과 구별된다. 이것은 아래의 도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sup>15</sup>

	오바다	나훔	요나
심판의 대상	에돔	니느웨	니느웨
심판의 이유	형제 야곱에 대한 포학	거짓, 포악, 탈취	악독
선지자가 외친 곳	예루살렘으로 추축	예루살렘	니느웨
선지자의 메시지의 대상	포로기 초의 유다 백성	남유다 백성	니느웨 백성

오바다나 나훔은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지만, 실제로 이들 선지자들은 유다 백성들을 청중으로 삼고 메시지를 전했다. 이들의 선포 목적은 이방 민족들의 회개가 아니라,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 자체인 것처럼 보인다. 그리하여 이들은 자신들이 선포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자 했다. 이들 선지서들의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 선언은 이스라엘에게는 회복

14 구자용은 자신의 논문에서 야훼의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 선언은 모든 민족을 포함하는 야훼의 통치와 그 이상의 제시로 본다. 구자용, 윗글, 63.

15 여기에 언급된 오바다, 나훔은 요나와 마찬가지로 전체 열방이 아니라, 한 민족이나 한 나라를 심판 대상으로 삼았기에 선택한 것이다.

을 암시하지만, 요나서는 이것과는 정반대편에 서있다.

그러기에 이들 선지자들은 요나처럼 심판 대상들에게 직접 가서 메시지를 선포하지 않았다. 오직 요나만이 심판의 대상자들에게 직접 가서, 심판 메시지를 전했다. 동시에 오바다나 나훔에서는 이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요나에서는 단지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 되었다”는 언급으로 구체적인 이유가 제시되지 않는다.

## 2) 요나서와 다른 선지서들의 심판 선언의 양식(형식) 비교

위에서 요나서와 이방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선지서들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봐왔다. 여기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심판 선언의 양식(형식)을 중심으로 기존의 전통적인 선지서들과 비교하고자 한다.<sup>16</sup> 이러한 비교를 통해서 요나가 선포한 심판 선언의 의도와 목적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심판 선언(Gerichtswort)은 구약성경에서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것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선지자가 개인과 집단, 국가에 재앙을 선포하는 것이다. 좀 더 자세히 언급하자면 심판의 대상은 보통 전체 백성들이지만, 일차적으로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지도자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들에 대한 심판의 주제(이유, 죄 지적)는 크게 ‘제의비판’과 ‘사회비판’으로 나눌 수 있다.<sup>17</sup> 물론 이 둘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제의와 사회적 문제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sup>18</sup> 심판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자연 재해를 통한 심판도 언급되지만, 주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앗시리아, 바벨

16 요나서를 예언서로 보지 않으려는 학자들도 많이 존재한다. 로버트 치즈홀름, 「예언서 개론」, (강성열 옮김), (고양: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6), 618. 원제는 Roert B. Chisholm Jr., *Handbook on the Prophets* (Grand Rapids: Baker, 2002); 추가적으로 위의 각주 7을 참고하십시오.

17 베르너 H. 슈미트, 「구약신앙: 역사로 본 구약신학」 (차준희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560-568. 원제는 Werner H. Schmidt, *Alttestamentlicher Glaube in seiner Umwelt* Neukirchner-Vluy: Neukirchener Verlag, 2004).

18 베르너 H. 슈미트, 「구약성서입문 II」 (차준희, 채홍식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5), 56. 원제는 Werner H. Schmidt, *Einführung in das Alte Testament* (Berlin: Walter de Gruyter, 1995).

론 등)을 도구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하신다.<sup>19</sup>

먼저 제의 비판은 바알 숭배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배교 내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들과 관계한다. 즉, 우상숭배와 불법적인 성소에서의 희생 제사, 불법적인 제의, 안식일 규정, 성전의 정결 문제 등과 같은 것들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호세아 등).<sup>20</sup> 반면에 사회 비판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지 않은 것에 대한 심판으로 볼 수 있다.<sup>21</sup> 당시 이스라엘이나 유다의 지배계급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힘없는 이들을 착취함으로써 재산을 축적했다. 재판장들은 뇌물을 받음으로 공정해야 할 재판을 불의한 것으로 만들었다. 이러한 곳에서는 고아나 과부, 나그네들, 즉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이들이 가장 큰 피해를 당하게 된다. 이러한 불법을 통해서 사회 전체는 공의와 정의가 사라지고 불의와 폭력이 지배하는 곳이 된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심판으로서 재앙을 선포하는 것이다.

이러한 심판의 주제를 통한 구분 외에 심판 선언의 세부 항목(심판 선포 양식)으로는 대개 재앙을 선언하는 하나님의 ‘재앙(위협)의 말’, 선지자 개인의 의견이 반영된 ‘책망의 말’, 그리고 ‘권고의 말’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sup>22</sup> 그러나 보통 선지자들의 말씀의 다수는 ‘재앙 선포’와 재앙 선포의 정당성을 언급하는 ‘책망의 말’로 이루어진다.<sup>23</sup> 경우에 따라서 재앙의 말과 책망의 말이 독립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대개 단일체를 형성한다.<sup>24</sup>

19 김회권, 『이사야 I』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261-262.

20 한스-크리스토프 슈미트, 『구약,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차준희, 김정훈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5), 569. 원제는 H.C. Schmitt, *Arbeitsbuch zum Alten Testament: Grundzüge der Geschichte Israels und der alttestamentlichen Schriften*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11).

21 윗글, 568-569.

22 윗글, 452-453; 심판 선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연구한 대표적인 학자로는 베스터만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의 책을 참고하라. Claus Westermann, *Grundformen Prophetischer Rede* (BEvTh 31; München: Chr. Kaiser Verlag, 1978).

23 베르너 H. 슈미트, 윗글 (2007), 521.

24 윗글, 524.

여기서는 요나처럼 직접 심판의 대상인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을 하는 선지자들과 비교하고자 한다. 대표적인 예 중의 하나로 미가서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미가는 이방 민족이 아닌 자기 민족인 유다를 향해서 심판을 선포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비교를 통해서 이방 민족인 니느웨를 향한 선지자 요나의 선포 의도와 목적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요나서와 미가서의 심판 선언 비교><sup>25</sup>**

미가 2:1-3		요나 3:4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피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발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책망의 말(비탄의 외침= 조가의 형식으로) =죄의 지적과 고발 관련시기: 현재 발언자: 예언자 (=예언자의 말)	
그러므로 여호와와 말씀에 (그러므로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자양식(신탁정식)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 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재앙(위협)의 말씀=재앙예고 =징벌통고 관련시기: 미래 발언자: “나” 야훼 (=하나님 말씀)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사십 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1) 하나님의 ‘재앙(위협)의 말’(Drohwort)<sup>26</sup>**

재앙의 말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재앙’을 선포하는 것으로 선지자들의 중개를 통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을 가리킨다. 이러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은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הַיְהוָה אָמַר כֹּה (코아마르 아도나이)]라는 정형화된 양식(사자 양식)을 통해서 표현된

25 미가서와 관련된 부분은 다음을 참조하였다. 에리히 첵어, 윗글, 729.

26 형벌 통고, 재앙 통고, 판결 통고 등으로도 불린다. 베르너 H. 슈미트, 윗글 (2007), 522.

다.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선지자가 전하는 재앙 메시지가 선지자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기원된 말씀임이 증명된다.<sup>27</sup>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메시지를 통해서 자신을 이 땅의 실질적인 통치자로서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으로 드러내신다. 요나서에서도 재앙의 말이 등장한다. 그러나 요나는 니느웨에서 이러한 재앙의 말을 선포할 때 사자 양식을 통해서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즉, 요나가 전한 심판 선언의 주체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에 대한 언급 없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니느웨 사람들은 선포의 주체가 하나님[אֱלֹהִים (엘로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을 볼 수 있다(3:5).

사실 하나님의 재앙(위협)의 말과 관련해서 두 개의 주장이 공존해 오고 있다. 먼저 재앙의 말은 하나님의 재앙을 미리 고지하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이 없다는 주장이다. 심판 선언의 대상이 된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재앙이 있을 것임을 미리 예고함으로써 하나님을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으로 드러내신다는 것이다(참조. 하박국 등).<sup>28</sup> 다음으로 하나님의 재앙의 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미리 고지함으로써 심판의 당사자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다(참조. 삼하 12:13; 렘 36:2-3; 요나서 등).<sup>29</sup>

그러나 사실 재앙 선언 자체만으로는 어떤 것이 재앙 선언의 참된 목적인지 알 수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의 재앙 선언을 가감 없이 선포해야 할 의무만 존재한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왜 재앙 선언을 선지자에게 미리 고지하게 했는가 하는 문제는 재앙 선포 자체만으로는 알 수 없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재앙 선언은 대부분 철회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일한 예외가 있다면

27 에리히 쉐어, 윗글, 729.

28 볼프와 같은 학자들은 하나님의 결정은 반복되지 않고 반드시 실행되는 것으로 본다. B. Lang, "Drohwort", Neues Bibel-Lexikon I (1991), 451.

29 한국의 많은 학자들이 이러한 주장에 동의하지만 유럽의 학자들내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한다. B. Lang, 윗글, 451.

그것은 바로 요나서에서다. 요나서에는 하나님의 재앙 선언만 있음에도 니스웨 왕과 백성들은 회개하고 있다. 그러기에 요나서로 국한시켜서 말한다면 최소한 요나서에서 만큼은 재앙의 말은 회개를 전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2) 선지자의 '책망의 말'(Scheltwort)<sup>30</sup>

선지자의 심판 선언의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인 선지자의 “책망의 말”은 재앙의 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책망의 말은 대개 선지자의 말로 하나님의 재앙의 정당성에 대해서 언급한다. 즉, 책망의 말은 선지자가 독자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 나라나 백성들의 죄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sup>31</sup> 물론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방민족들을 향해서 구체적인 죄를 지적함으로써 심판의 이유를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달하는 경우도 있다(참조, 암 3:10).<sup>32</sup> 그러나 여기서 다루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을 때, 선지자가 자발적으로 백성들의 죄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경우에 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선지자들이 심판의 대상이 된 백성들의 죄를 지적할 때 선지자가 하나님의 재앙의 말에 대한 근거와 이유를 자신의 말로 설명하고, 제시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으로 선지자는 심판의 당사자들에게 하나님의 재앙 선언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한다.<sup>33</sup> 그래야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의 죄에 대한 형벌로 좀 더 쉽게 인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선지자는 단순한 언어의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선지자의 책망의 말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라기보다는 선지

30 고발, 죄 지적으로도 불린다. 베르너 H. 슈미트, 윗글 (2007), 522.

31 베르너 H. 슈미트, 윗글 (2005), 37.

32 B. Lang, 윗글, 450.

33 에리히 쉐어, 윗글, 729.

자가 자의적으로 추가한 말이다. 동시에 책망의 말은 하나님의 재앙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심판의 대상이 된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죄에서 돌이킬 것을 요청하는 것이기도 하다. 만약 재앙 선고만 있고, 구체적인 죄에 대한 지적이 없다면, 심판의 대상이 된 사람들은 재앙의 이유에 대해서 알지 못할 수도 있기에 회개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기에 선지자들은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도 자기 민족을 다가올 하나님의 재앙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의 죄를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지적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선지자들은 이러한 죄 지적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이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기를 간절하게 소망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책망(죄 지적)하는 이유는 자기 민족을 멸망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심판 선언에서 언급되어야 할 선지자의 책망의 말이 요나서에서는 빠져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재앙의 말만 선포했지, 선지자가 자발적으로 죄를 지적하는 책망의 말은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 요나는 이러한 심판 선언의 요소 중의 하나인 선지자의 책망의 말을 언급하지 않았을까?

#### 4. 심판 선언을 통한 선지자 요나의 의도와 목적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요나서에서는 선지자 요나가 니느웨의 죄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장면이 빠져있다. 대신 하나님이 니느웨의 죄에 대해서 매우 포괄적으로 지적하는 장면만 요나서 1장 2절에서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 되었다.” 이것도 요나에게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에 니느웨 사람들은 알 수 없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죄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요나서 어디에도 요나가 니느웨의 죄를 지적했다는 말이 등장하지 않는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3장 4절에

서 “사십 일이 지나면 니스웨가 무너지리라”는 하나님의 ‘재앙(위협)’의 말’만 등장한다.

이렇듯 요나는 선지자들이 재앙 선언과 더불어 선포하는 책망의 말을 하지 않았다. 이것은 요나가 의도적으로 책망의 말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은 요나서 4장 2절을 통해서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요나서 4:2

וַיִּתְפַּלֵּל אֶל־יְהוָה וַיֹּאמֶר אֲנִי יְהוָה הֲלוֹאֲנִי דָבָרִי  
עַד־הַיּוֹתֵי עַל־אֲדָמָתִי עַל־כֵּן קָדַמְתִּי לְבְרַחַת תְּרַשְׁיָשָׁה כִּי  
יִרְעֵתִי כִּי אֵתָּה אֱלֹהֵינוּ וְרַחֵם אֲרָךְ אַפַּיִם וְרַב־חַסֵּד וְנָחֵם עַל־הָרַעָ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가 실제로 니스웨로 가기를 거부했던 것은 자신의 심판 선언을 통해서 니스웨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니스웨의 회개를 받아주신 것에 대해서 4장 1절에 언급된 것처럼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분노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인애로 인해서 니스웨가 용서받는다는 것은 요나의 관점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요나는 니스웨를 향한 국수주의적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차원에서라도 하나님의 진노가 니스웨에 임하길 원했던 것으로 보인다.<sup>34</sup>

34 선지서에 언급된 심판 선언의 일차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악인들에 대한 징계로 볼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선포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요나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선포해야 할까? 요나가 니느웨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면 니느웨의 회개를 막기 위한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여기에 두 가지 방법이 동원된다.

요나서 3:3-4

3 וַיִּקַּם יוֹנָה וַיֵּלֶךְ אֶל־נִינְוָה כְּכַבֵּר יְהוָה  
וּנְיִנְוָה הָיְתָה עִיר־גְּדוֹלָה לְאֱלֹהִים מִהֶלֶךְ שְׁלֹשֶׁת יָמִים:  
4 וַיֵּחַל יוֹנָה לְבֹא כְעִיר מִהֶלֶךְ יוֹם אֶחָד  
וַיִּקְרָא וַיֹּאמֶר... עוֹד אַרְבָּעִים יוֹם וּנְיִנְוָה נִהְפָּקֶת:

3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4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사십 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요나의 선포에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아직 심판이 임하기까지는 사십 일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한 심판 선언을 빨리 마무리 하는 것이다.<sup>35</sup> 이러한 요나의 행위는 다른 선지자들의 모습과 대비된다. 일반적으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전파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요나는 사흘 정도 걸어야 하는 큰 성읍에 단 하루 동안만 다니며 하나님의 재앙을 선포하고 있다. 여기서 보여지는 요나의 모습

수 있다. 선지서에서의 행위 회복의 관계를 잘 설명한 학자로 코흐를 들 수 있다. 클라우스 코흐, 「예언자들 1」(강성열 옮김), (고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4), 103-109. 원제는 Klaus Koch, *Die Profeten I: Babylonisch-persische Zeit* (Stuttgart: Kohlhammer, 1978);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는 공의와 정의다. 김근주, 「특강 이사야」(서울: IVP, 2018), 90.

35 사십 일이라는 시간은 니느웨가 충분히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일 수 있다. H. W. Wolff, *유태교*, 124.

은 니스웨 사람들이 자신의 선포를 듣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의 모습이다. 기존의 선지자들의 전통과 달리 하나님께서 시키셨기에 억지로 사명을 감당해야만 하는 선지자의 모순된 모습을 볼 수 있다.<sup>36</sup> 이것이 요나가 저항하는 첫 번째 방법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요나는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심판의 주체가 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사자 양식이 빠져 있음).<sup>37</sup> 더 심각한 것은 일반적인 심판 선언의 형식을 변경함으로써 선지자의 책망의 말인 구체적인 죄를 지적하는 요소를 빼버렸다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부름받은 요나가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일 것이다. 요나는 다른 선지자들처럼 심판 대상자들의 죄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않음으로 니스웨 백성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으려 했던 것 같다. 실제로 니스웨 사람들은 요나를 통해서 심판의 주체인 하나님에 대해서나, 하나님의 죄 지적과 고소, 혹은 요나의 직접적인 죄 지적이나 고발, 권고의 말 등을 듣지 못했다. 이들도 자신들의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당연히 알아야 한다. 그래야만 심판이 자신들의 죄에 대한 형벌로 인식할 수 있게 되고, 그들 자신들의 죄로부터 구체적으로 돌이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요나가 걱정했던 것은 바로 니스웨 백성들이 자신들이 저지른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sup>38</sup>

그러나 놀라운 것은 요나가 이러한 편법을 동원했음에도 니스웨 백성들과 왕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켰다는 사실이다.<sup>39</sup>

---

36 스트루페는 요나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거리를 두면서 선포하는 것으로 묘사한다. Ursula Struppe, *윗글*, 118.

37 P. Trible, *윗글*, 180; Ursula Struppe, *윗글*, 118.

38 요나는 행위 회복의 관계를 고수하기에 이것이 깨지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J. Ch. Gertz (ed.), *Grundinformation Altes Testament*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6), 383.

39 결과적으로 요나서에서의 심판 선언은 비록 요나의 회개와 돌이킴에 대한 선포가 없었음에도 회개를 전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배정훈도 요나의 재앙 선포를 회개를 요청하는 것과 동일시한다. 배정훈, “구약성서에 나타난 회개운동의 모델연구”, 『구약논단』 65집 (2017년 9월), 121.

8 וַיִּתְכַסּוּ שָׁקִים הָאָדָם וְהַבְּהֵמָה וַיִּקְרְאוּ אֶל־אֱלֹהִים בְּחֹזֶק

וַיֹּשְׁבוּ אִישׁ מְדַרְכּוֹ הַרְעָה וּמִן־הַחֲמָט אֲשֶׁר בְּכַפֵּיהֶם:

9 מִי־יִזְרַע יִשׁוּב וְנָחַם הָאֱלֹהִים

וְשָׁב מִחֲרוֹן אַפּוֹ וְלֹא נֶאֱבָד:

8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 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9 하나님 뜻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요나가 구체적인 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았지만, 3장 8-9절에서 니느웨 왕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가 ‘악한 길’[רעה רעה(데렉 라아)]과 ‘강포’[חמט(하마스)]였음을 언급하고 있다.<sup>40</sup> 이러한 말을 통해서 선지자 요나와 니느웨 왕의 역할이 역전되었다. 아이러니하게도 니느웨 왕이 오히려 선지자 요나가 해야 할 말을 선포함으로 니느웨 전체를 구원하고 있다. 선지자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할 것을 외치거나,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호소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이러한 역할을 니느웨 왕이 하고 있다.<sup>41</sup>

결국 요나가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선포를 통해서 의도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지 못하도록 최대한 저지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요나는 가급적 심판 선언을 빨리 마무리하고, 동시에 기존의 선지자들의 재앙 선포 양식을 변경함으로써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요나는 이처럼 극단적으로 하나님께 저항하는

40 특히 3장 9절은 요엘 2장 14절과 맥을 같이 한다(주께서 흑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Ursula Struppe, 윗글, 123; 니느웨가 저지른 악한 길과 강포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위해서는 다음을 참고하십시오. P. Trible, 윗글, 186-187.

41 Ursula Struppe, 윗글, 124.

것일까? 요나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을 믿었다. 그러기에 만약 니느웨가 회개하게 되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재앙이 니느웨에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sup>42</sup> 동시에 자신의 조국 북이스라엘의 적국인 니느웨를 용서할 수 없는 선지자의 국수적인 모습도 볼 수 있다. 요나의 입장에서 만약 위협적인 니느웨가 용서받는다면 이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위기일 수 있기 때문이다.<sup>43</sup> 그러기에 요나는 끝까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 이러한 모습은 니느웨의 선포를 마치고 행한 요나의 행동과 말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여호와와 심판 철회와 니느웨의 회개가 요나를 분노하게 한다(4:1).<sup>44</sup> 그러기에 요나는 4장 5절에 성읍을 떠나서 성읍 동쪽에 앉아서 니느웨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마치 막까지 확인하고자 했던 것이다. 요나가 진심으로 보고자 했던 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심판과 니느웨의 멸망이었을 것이다.<sup>45</sup> 그러나 자신이 기대했던 일이 일어나지 않고, 뜨거운 피약별만 내리쬐자 요나는 죽기를 갈구한다. 이것은 단지 더위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철회가 주된 이유로 보인다. 이것은 이어지는 4장 10-11절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나의 숨겨진 계획과 실패는 동시에 요나에게 하나님과 세상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해 준다. 요나는 자신의 실패를 통해서 기존의 하나님과 세상에 대한 이해를 더 확장시키고,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42 요나는 자신이 니느웨에 전한 말이 실행됨으로써,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질 원했다. 그런데 이것이 좌절됨으로 요나는 절망하게 된다. H. W. Wolff, *윗글*, 142.

43 Walter Bührer, "Der Gott Jonas und der Gott des Himmels", BN 167 (2015), 73-74.

44 볼프는 요나가 화를 내는 것을 하나님의 정의의 문제, 즉 신정론의 문제와 연결시킨다. H. W. Wolff, *윗글*, 149-150; 요나와 행위 회복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J. Ch. Gertz (ed.), *윗글*, 383; 이미영은 목회 상담학의 관점에서 요나의 분노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분노는 악이 드러나는 모든 현상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며, 동시에 사랑을 이루는 것임을 말한다. 이미영, "반항하는 요나를 허용하라: 불순종과 분노의 정당성", 『목회와 상담』 27 (2016), 164. 그러나 요나의 경우는 공의와 정의라는 보편적인 관점도 있지만, 동시에 자기 민족을 향한 국수주의적 관점도 내포되어 있다.

45 Ursula Struppe, *윗글*, 136.

## 5. 나오며

요나서는 하나님의 심판 선언에 응답하는 이방 민족과 회개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을 비교함으로써 요나로 대표되는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고 있다.<sup>46</sup> 요나는 적대국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주저했고, 동시에 니느웨 대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에 대해서 정당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sup>47</sup> 요나는 니느웨의 죄는 심판과 처벌을 통해서만 속죄될 수 있다는 생각의 대변자다. 그러기에 요나는 죄인들에게 경고하기를 원하지 않았고, 격정적으로 하나님의 용서와 사면에 대해서 저항했던 것이다.<sup>48</sup> 이에 반해 하나님은 이러한 요나와 포로 후기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신이 누구이며, 이방 민족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가르치고자 하셨다. 니느웨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의 깨달음과 태도 변화가 하나님의 계획도 변경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워야 한다.<sup>49</sup> 그러기에 요나서는 한편으로는 선지자 요나에 대한 이야기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의 죄에 대해서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이런 의미에서 요나서는 단순한 역사적 서술이 아니라, 교육적인 목적을 가진 성경임을 알 수 있다.<sup>50</sup>

요나에게 있어서 니느웨는 용서의 대상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요나는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는 단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는 것으로 이

---

46 윗글, 79.

47 Hans-Jürgen Zobel, 윗글, 231.

48 Ursula Struppe, 윗글, 81.

49 코흐는 예고된 재앙이라 하더라도 백성들이 회개할 경우 하나님에 의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신한다. 클라우스 코흐, 「예언자들 2, (강성열 옮김), (교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6), 284-285. 원제는 Klaus Koch, *Die Profeten II: Babylonisch-persische Zeit* (Stuttgart: Kohlhammer, 1980).

50 요나서는 1장의 뱃사람들이나 3장의 니느웨 사람들을 통해서 요나의 변화를 최종 목표로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Jan-Dirk Döhling, "Das Wüten der Welt: Zur literarischen und narrativen Funktion der Schöpfungsdynamik in Jona 1 und 2", BN 157 (2013), 29; 볼프도 요나서가 아이러니하면서도, 교육적인 특징을 가진 노벨레(die ironisch-didaktische Novelle)로 보기도 한다. H. W. Wolff, 윗글, 62-64.

해했다.<sup>51</sup> 하나님은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요나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관점으로 하나님과 열방을 대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창조주이자 역사의 주로서 자신을 보여주신다. 동시에 역설적이게도 여호와와 공의와 심판이라는 문제를 통해 여호와와 은혜와 자비에 초점을 맞춘다.<sup>52</sup>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진실로 원하시는 것은 재앙이나 심판이 아니라, 회개를 통한 사랑과 자비임을 알 수 있다. 그러기에 요나서에서는 출애굽기 34장 6-7절<sup>53</sup>이 이스라엘에게만 희망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 이방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임을 말하고 있다. 비록 하나님의 자비와 인내가 요나에게는 분노와 절망의 이유가 된다 하더라도 요나와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진 이들은 그런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한다. 하나님은 요나와 같은 이들이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으로 보인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을 먼저 여심으로 고지식하고, 완고한 사람들을 그들의 좁은 경험과 지식에서 벗어나도록 교육하신다.<sup>54</sup>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심판 선언은 단지 심판 자체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의 심판 선언을 통해서 심판 대상이 된 백성들에게 적절한 반응을 기대하고 있다. 그것은 죄 많은 백성들의 ‘돌이킴’(회개)이다.<sup>55</sup> 심판 선언은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심’으로 패역한 백성

51 Ursula Struppe, *윗글*, 130.

52 마빈 A. 스위니, 「예언서」(홍국평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7), 49-50. 원제는 Marvin A. Sweeney, *The Prophetic Literature* (Nashville: Abingdon Press, 2005).

53 출애굽기 34:6-7(6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7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삼사 대까지 보응하시리라).

54 H.W. Wolff, *윗글*, 150-151.

55 볼프는 예레미야-신명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심판 선언의 실제적인 기능은 선포를 듣는 자들의 돌이킴을 전제한다고 말한다. H. W. Wolff, *윗글*, 65; E. 젤린/ G. 포오러, 「구약성서개론(하)」, (방석종 옮김), (서울: 성광문화사, 1996), 191. 원제는 E. Sellin/ G. Fohrer, *Einleitung in das Alte Testament* (Heidelberg: Quelle & Meyer, 1979); 그러나 유럽을 중심으로 많은 학자들이 심판선언의 목적은 회개가 아니라, 징계와 심판 자체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차준희, 「예언선포의 의도」, 차준희(편저), 「구약 예언서 이해」(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9), 76-84.

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정화 과정이다.<sup>56</sup>

요나서는 4장 10-11절의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질문으로 막을 내린다. 이러한 질문은 교육적인 의도이며 동시에 책의 주제이기도 하다.<sup>57</sup>

요나서 4:10-11

10 וַיֹּאמֶר יְהוָה אַתָּה חֹסֵת עַל-הַקִּיקִיּוֹן אֲשֶׁר לֹא-עֲמִלָּתָ בּוֹ וְלֹא נִדְלַלְתָּ  
שְׁבוֹן-לִילָה הִנֵּה וּבֹן-לִילָה אָכָר:  
11 וַאֲנִי לֹא אֲחֹס עַל-נִינוּה הָעִיר הַגְּדוֹלָה  
הַרְבֵּה מְשֻׁתֵּים-עֲשָׂרָה רְבוֹ אֲדָם אֲשֶׁר לֹא-יָדַע בֵּין-יְמִינִי לְשָׂמְאֵלוֹ וּבִהְמָה רַבָּה:  
אֲשֶׁר יִשְׁכָּה

10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낮  
다가 하룻밤에 말라 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11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십 이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의 마지막 질문은 하나님으로서의 화자가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에서  
답을 찾고, 요나의 제한된 하나님 이해를 창조주와의 다양한 관계를 통해서 넘  
어서도록 초대하고 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강조하는 요나서는 무엇보다도  
포로 후기 유다 공동체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주었을 것이다. 그들은 바  
빌론 유배를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았고,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어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희망에 의존해야 했다. 따라서 요나의  
이야기는 포로 후기 유다 사람들이 회복을 꿈꾸는 과정에서 하나님과 세상에

56 H.W. Wolff, "문서예언서 이해", 차준희(편저), 「구약 예언서 이해」(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9), 24-25.

57 M. Gerhards, "Ninive im Jonabuch", Diehl, J.F. / Heitzenröder, R. / Witte, M. (ed.), "Einen Altar von Erde mache mir ..." (FS D. Conrad: KAANT 4/5), (Waltrop: Hartmut Spenner, 2003), 57.

대한 새로운 이해와 더불어 회복의 선결 조건으로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성경으로 읽혔을 것이다.<sup>58</sup> 요나의 이야기는 당대의 이스라엘 공동체를 넘어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은 누구시며, 우리가 하나님, 그리고 이 땅의 백성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할지를 교훈하고 있다.

## 6. 참고문헌

구자용, “12 소예언서의 이방 민족들: 이방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말을 중심으로 본 12 소예언서의 구성에 관한 연구” 『구약논단』 71집 (2019년 3월), 54-91.

김근주, 『특강 이사야』 (서울: IVP, 2018).

김상래, “요나의 기도 (욘 1:17-2:10)에 묘사된 요나의 성격이해”, 『구약논단』 53집 (2014년 9월), 223-255.

김회권, 『이사야 I』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더글러스 스투어트, 『호세아-요나』 (WBC 31), (김병하 옮김), (서울: 솔로몬, 2011). 원제는 Stuart, Douglas, *Hosea-Jonah* (WBC 31), (Nashville: Thomas Nelson, 1987).

로버트 치즈홀름, 『예언서 개론』 (강성열 옮김), (고양: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6). 원제는 Chisholm Jr., Roert B., *Handbook on the Prophets* (Grand Rapids: Baker, 2002).

마빈 A. 스위니, 『예언서』 (홍국평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7), 238-239. 원제는 Sweeney, Marvin A., *The Prophetic Literature* (Nashville: Abingdon Press, 2005).

배정훈, “구약성서에 나타난 회개운동의 모델연구”, 『구약논단』 65집 (2017년 9월), 112-138.

---

58 마빈 A. 스위니, 윗글, 240.

- 베르너 H. 슈미트, 「구약성서입문 II」 (차준희, 채홍식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5), 56. 원제는 Schmidt, Werner H., *Einführung in das Alte Testament* (Berlin: Walter de Gruyter, 1995).
- \_\_\_\_\_, 「구약신앙. 역사로 본 구약신학」 (차준희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원제는 Schmidt, Werner H., *Alttestamentlicher Glaube in seiner Umwelt* (Neukirchner-Vluyn: Neukirchener Verlag, 2004).
- 에리히 쉐어, 「구약성경개론」 (이종한 옮김), (왜관: 분도출판사, 2012). 원제는 Zenger, E., *Einleitung in das Altes Testament* (Stuttgart: Kohlhammer, 2004).
- 이미영, “반항하는 요나를 허용하라: 불순종과 분노의 정당성”, 「목회와 상담」 27 (2016), 139-171.
- 에른스트 쉐린/ 게오르크 포러, 「구약성서개론(하)」, (방석중 옮김), (서울: 성광문화사, 1996). 원제는 (Sellin, E.) Fohrer, G., *Einleitung in das Alte Testament* (Heidelberg: Quelle & Meyer, 1979).
- 차준희 (편저), 「구약 예언서 이해」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9).
- 클라우스 코흐, 「예언자들 1」 (강성열 옮김), (고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4). 원제는 Koch, Klaus, *Die Profeten I: Babylonisch-persische Zeit* (Stuttgart: Kohlhammer, 1978).
- \_\_\_\_\_, 「예언자들 2」 (강성열 옮김), (고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6). 원제는 Koch, Klaus, *Die Profeten II: Babylonisch-persische Zeit* (Stuttgart: Kohlhammer, 1988).
- 한스-크리스토프 슈미트, 「구약,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차준희, 김정훈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5). 원제는 Schmitt, H. C., *Arbeitsbuch zum Alten Testament: Grundzüge der Geschichte Israels und der alttestamentlichen Schriften*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11).
- Albertz, Rainer/ Nogalski, James/ Wöhrle, Jakob (eds.), *Perspectives on the*

- Formation of the Book of the Twelve: Methodological Foundations-Redactional Processes-Historical Insights* (BZAW 433; Berlin/Boston: Walter de Gruyter, 2012).
- Bührer, Walter, “Der Gott Jonas und der Gott des Himmels: Untersuchungen zur Theologie des Jona-Buches”, BN 167 (2015), 65-78.
- Dietrich, Walter, “Ninive in der Bibel”, Dietrich, Walter (de.), *Theopolitik, Studien zur Theologie und Ethik des Alten Testaments*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2002), 239-254.
- Döhling, Jan-Dirk, “Das Wüten der Welt: Zur literarischen und narrativen Funktion der Schöpfungsdynamik in Jona 1 und 2”, BN 157 (2013), 3-32.
- Gerhards, M., “Ninive im Jonabuch”, J.F. Diehl/ R. Heitzenröder/ M. Witte. (ed.), “*Einen Altar von Erde mache mir ...*” (FS D. Conrad; KAANT 4/5), (Waltrop: Hartmut Spenner, 2003), 57-75.
- Gertz, Ch. (ed.), *Grundinformation Altes Testament*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6).
- Krispenz, Jutta, “Prophetische Redeformen”, 6, <http://www.bibelwissenschaft.de/stichwort/31384>
- Lang, B., “Drohwort”, Neues Bibel-Lexikon I (1991).
- Struppe, Ursula, *Die Bücher Obadja, Jona* (NAKAT 24/1), (Stuttgart: Katholisches Bibelwerk, 1996).
- Trible, P., *Rhetorical Criticism Context, Method and the Book of Jonah*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4).
- Westermann, C., *Grundformen Prophetischer Rede* (BEvTh 31; München: Chr. Kaiser Verlag, 1978).
- Wolff, H. W., *Dodekapropheten 3. Obadja, Jona* (B.K XIV3), (Neukirchner-Vluyn: Neukirchener Verlag, 1977).

Zobel, Hans-Jürgen, “Jona/Jonabuch”, TRE XVII (1974), 229-234.

[www.kci.go.kr](http://www.kci.go.kr)

## 검색어

요나서

요나의 메시지

예언 선포 양식

심판 선언

12 소선지서

# Jonah's Hidden Intention for Nineveh through the Form of Prophetic Judgment

Chol-Gu Kang, Dr. theol.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Theology

Westminster Graduate School of Theology

This essay is an attempt to understand the book of Jonah through the form of prophetic judgment. By comparing oracles of judgment in the book of Jonah with those in the other books of prophets, I tried to understand the book of Jonah more specifically and to understand the purpose and meaning of the prophetic judgments of the Old Testament in general. For this purpose, I used an approach of prophetic speech forms (form criticism) as a methodology rather than a historical approach to the book of Jonah.

In general, when prophets proclaim the judgment of God against Israel or foreign nations around Israel, it is the fact that God or prophets specifically point out or accuse them of their sins. In the book of Jonah, unlike the other prophetic books, these elements do not appear. The book of Jonah mentions only the scene of God pointing out the sin of Nineveh in such a comprehensive way as Jonah 1:2, "Go to the great city of Nineveh and

www.kci.go.kr

preach against it, because its wickedness has come up before me.” He simply announced that Nineveh would be overturned. Nowhere else is it said that Jonah pointed out the sins of Nineveh. There is a “threat discourse” (Drohwort) only in the book of Jonah (3:4, “Forty more days and Nineveh will be overturned.”). It seems that Jonah prevented Nineveh from repenting by intentionally changing the declaration form of prophetic judgment. Nevertheless, what is surprising is that all the people, including the king of Nineveh, repented, and that God released his wrath and withdrew the disaster that he would bring down (3:10).

This is the point that I want to deal with in this paper. Jonah knew that the “prophetic reproach” (Scheltwort) could actually be God’s warning to cause repentance. Therefore, Jonah did not point out the sins of Nineveh. He did not want Nineveh to escape the judgment of God. But God, knowing Jonah’s intentions, forgave Nineveh to let him know where His will was. God’s will lies not in judgment, but in repentance and forgiveness. This applies not only to Israel but also to the Gentiles. The book of Jonah reveals God as the Creator of the universe and the Lord of history to the post-exilic Jewish community and asks them to accept God’s new image.

## Keywords

the Book of Jonah

Jonah's message

prophetic speech forms

declaration of judgement

the book of the Twelve

- 투고일: 2019년 7월 15일
- 심사일: 2019년 7월 16일
- 게재 확정일: 2019년 7월 29일

[www.kci.go.kr](http://www.kci.go.kr)